코로나 풀리자 버스 멈추나…순천 파업 돌입

순천교통, 55개 노선 중 30개 운행 중단…광주 시내버스 운송사 10곳 중 9곳 '26일 파업'

한국노총 소속 광주·전남지역 시내버스 노동자들이 임금인상 등 노동조건 개선을 요구하며 총파업을 결의, 파업 초읽기에 돌입했다.

광주 10개 시내버스 운송사 가운데 9개사가 파업을 결의하면서 막판 극적 타결이 없다면 오는 26일 교통 대란이 현실화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당장 순천에서는 한국노총에 가입하지 않은 시내버스 회사 노사의 임금인상 협상 결렬로 버스 운행이 중단됐다.

20일 한국노총에 따르면 전국자동차노동조합연맹(자동차노련) 소속 운전기사 3만9189명은 지난 18일과 19일 양일간 광주를 비롯한 전국 10개 지역 207개 사업장에서 파업찬반 투표를 진행했다. 개표 결과 96.3%(3만7744명)의 압도적 표차로 파업안이 가결됐다. 광주와 전남의 경우 각각 78.0%, 93.9%의 찬성률을 보였다.

파업 찬반투표에 앞서 광주를 비롯한 전국 20개 지역버스노조 대표자들은 지난 5일 회의를 열고, 파업안이 가결되면 오는 26일 첫 차부터 운행을 멈추기로 결의한 바 있다.

운전기사들은 ▲임금 인상(8.5%) ▲고용안정 ▲교통시설특별회계법 개정으로 버스계정 신설 등을 당국과 운송사 측에 요구하고 있다. 노조 측은 "코로나19 사태를 빌미로 현장 조합원들이 일터를 떠났고, 수입 감소로 인한 경영악화를 이유로 실질임금은 삭감되는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며 "정부 차원의 재정지원 없는 상황에서 각 지자체가 버스요금을 묶어 버스업계는 물론 운전기사들이 고사 직전"이라고 했다.

이런 상황에서 광주 버스노조는 21일 회의를 거쳐 26일 하루 전면 파업에 돌입할 지, 부분 파업을 할지 등 파업수위를 결정하기로 했다.

이번 파업 찬반 투표에는 광주 10개 시내버스 운송업체 가운데 9개 업체 노조가 참여했다. 9개사 노조 소속 운전기사들은 1400명 가량으로 전체의 60%에 해당한다는 점에서 광주에서 파업이 이뤄질 경우 출퇴근길 혼란 등 시민 불편이 우려된다.

다만 광주시내버스 노조가 파업에 앞서 전남지방노동위원회에 조정신청을 하는 등 관련법에 따른 쟁의조정 절차를 거치기로 했다는 점에서 노사간 막판 극적 타결이 이뤄질 가능성도 있다.

광주시 관계자는 "지난 19일 1차 조정회의에서 노조와 사측이 입장을 서로 전달했고, 오는 25일 2차 조정회의가 진행될 예정"이라며 "시민 세금이 투입되는 버스가 멈춰 시민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막판까지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전남에서는 20일 오전을 기해 순천지역 일부 시내버스가 멈춰섰다. 운전기사들이 파업하면서다. 나머지 시군지역 시내버스 노조도 자동차노련과 함께 오는 26일 파업에 돌입할 가능성이 큰 상황이다.

순천에서는 이날 새벽 5시부터 순천교통 노조가 파업에 돌입하면서 30개 시내버스 노선 운행에 차질이 빚어지고 있다. 순천시는 21일부터 전세버스 44대를 운행 중단 노선에 대체 투입하는 한편 파업에 참여하지 않은 운전기사들을 투입하기로 했다. 택시부제도 해제해 지역내 1176대의 전체 택시가 운행하도록 했다.

순천교통 노사는 임금인상과 정년 연장 등을 놓고 올초부터 지난 2월 말까지 5차례 교섭을 진행했으나 최종 결렬됐다. 이달 들어서도 3차례 걸친 전남지방노동위원회의 조정안에도 불구하고 입장차를 좁히지 못해 노조 측이 파업에 돌입했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체력 자신있어요 20일 오전 광주시 동구 용산 생활체육공원 운동장에서 열린 '2022년 소방공무원 체력검정'에서 동부 소방 소속 소방관들이 제자리 멀리뛰기를 하고 있다. 〈광주시 동부소방 제공〉

'조선대길 146'

조선대 도로명 주소 변경

조선대학교의 도로명 주소가 '필문대로'에서 '조선대길'로 변경됐다.

20일 조선대에 따르면 바뀐 도로명 주소에 따라 조선대 본관 주소는 광주광역시 동구 조선대길 146으로, 146은 정문으로부터 본관까지의 거리 1460m를 의미한다.

부여된 도로명 주소는 정부가 1996년부터 추진해 온 도로명주소법을 기준으로 도로 왼쪽 건물의 경우 홀수, 오른쪽 건물은 짝수다.

건물번호 사이 거리는 20m다.

조선대는 미래 웹 기반 위치 서비스사인 네이버, 카카오, 구글 등에 도로명 주소를 제공할 계획이다. /윤영기 기자 penfoot@

안전성 검사 했더니… 어린이제품 '부적합 최다'

매트·옷 등 12개 리콜 명령

실내 활동 등에 쓰이는 512개 제품에 대한 정부 안전성조사 결과 어린이제품 (12개), 생활용품 (3개), 전기용품(2개) 등에서 기준치를 초과한 휘발성 유기화합물과 카드뮴이 검출됐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지난 2월부터 4월까지 512개 제품에 대한 안전성조사를 진행해 17개 제품을 적발했다고 20일 밝혔다.

구체적으로 바닥매트 3개에서는 휘발성유기화합물인 폼아마이드 또는 카드뮴이 기준치를 초과해 검출됐다. 손잡이에서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기준치를 초과한 역할놀이 완구도 1개 있었다. 안감 코팅, 금속 조임쇠, 옷감 등에서 납·폼알데하이드·노니페놀 등 유해물질이 기준치를 초과한 아동용 섬유제품 5개와 끼임사고 방지를 위한 조임끈 기준에 위반된 아동용 바지 1개도 리콜 대상이다.

17개의 제품을 사용중인 소비자는 제품안전정보센터(www.safetykorea.go.kr) 및 소비자24(www.consumer.go.kr)에서 확인 가능하다. /정병호 기자 jusbh@

어선·레저선박 음주·무면허 집중단속

여수·완도해경, 23일부터

해경이 봄 행락철 선박 활동량 증가 시기에 맞춰 어선·레저 선박에 대한 음주·무면허 운항 집중 단속에 나선다.

여수해양경찰은 23일 음주 운항 특별단속을 진행한다고 20일 밝혔다.

유·도선, 낚시어선 등 다중이용 선박, 어선, 수상레저기구 등이 단속대상이다. 자동차와 같이 혈중 알코올농도 0.03% 이상부터 단속된다. 음주 정도에 따라 최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 면허 정지 또는 취소까지 될 수 있다.

지난 11일 고흥군 용정리 인근 해상에서 1t급 어선 A호 선장이 혈중 알코올농도 0.131%의 만취 상태로 운항하다 적발되는 등 올해 들어서 여수해경 관할에서만 총 4건의 음주운항이 적발됐다.

완도해양경찰은 다음 달 1일까지 수상 레저 안전을 위해 시범 집중 단속에 돌입했다.

무면허 조종, 주취 운항, 안전장비 미착용 등 3대 안전 무시 관행과 운항 규칙 미준수 행위 등을 집중 단속한다. 완도해경에 따르면 최근 3년간 관내 수상 레저활동 단속 건수는 2019년 18건, 2020년 20건, 2021년 23건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다. /김형호 기자 khh@kwangju.co.kr

광주일보 70년
호남 최대 부수
열독률 호남 1위

5·18 신진 연구자 워크숍 참가자 모집

5·18기념재단, 5~9월 사적지·광주 일원서

5·18기념재단이 전국 교육활동가와 신진 연구자를 지원하면서 5·18민주화운동 교육에 적극 나선다.

20일 5·18기념재단에 따르면 5월부터 9월까지 전국 교육활동가(교원, 청소년기관 종사자, 교육관련 시민단체 종사자)를 대상으로 '오월학교(교육활동가) 자유연수'를 5·18사적지와 광주 일원에서 개최한다.

오월학교 자유연수는 기존 5·18민주화운동의 역사와 오월교육에 관련된 학습 뿐만아니라 오월과 광주의 문화콘텐츠를 체험할 수 있는 다트(Dark+Art)투어 형식으로 진행된다.

참가자들에게 5·18민주화운동과 관련된 교육영상, 교육자료, 오월길 답사 및 문화행사 정보 등을 제공해 추후 이들이 교육활동에 활용할 수 있게 할 예정이다. 소정의 연수경비와 기념품도 지원한다.

참가희망자는 연수계획서를 첨부해 4월 30일까지 5·18기념재단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선착순으로 100명을 모집한다. 광주지역 참여자는 50% 이하로 제한한다. 선정된 그룹은 5월부터 9월까지 광주를 방문해 자유연수를 진행한다.

5·18기념재단은 이와 함께 5·18을 비롯한 민주주의 연구에 관심을 갖고 있는 신진 연구자의 연구주제 및 문제의식을 공유하고 향후 학술연구 활성화를 모색하기 위해 '5·18 신진연구자 워크숍'을 7월 7일부터 8일까지 1박 2일에 걸쳐 개최한다.

올해 처음으로 진행되는 '5·18 신진 연구자 워크숍'은 5·18기념재단에서 주최·주관하고, 전남대 5·18연구소에서 후원한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아동센터 돌봄 환경 개선

광주 남구 3000만원 투입

남구는 광주YWCA 지역아동센터 등 지역아동센터 9곳에 총 3000만원을 투입, 돌봄 환경 개선 사업에 나선다고 20일 밝혔다. 센터 내 조명 교체, 안전시설 확충, 주방 및 화장실 개·보수, 도배·장판 교체 사업이 진행된다.

지역아동센터 환경개선 지원사업은 남구 지역아동센터 49곳을 대상으로 지난 2019년부터 진행해온 사업이다. 최근 3년간 사업비 2억 8700만원이 투입돼 41개 센터의 시설이 개선됐다. /유연재 기자 yjyou@kwangju.co.kr